## 5. 남인의 문묘 종사 반대

1681년 9월 18일에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가 결정되었는데 10일도 지나지 않은 9월 27일에 이러한 문묘 종사를 반대한다는 상소문이 임금에게 전달되었다. 유생 박성의 등 60여명이 올린 상소였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인조 13년(1635년)에 생원 송시형 등이 처음으로 두 신하를 종사해야 한다는 주청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성상은 '도덕이 높지 못하고 결점과 비방이 있다.'고 하교하시면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신들이 일찍이이의 사직 상소문을 보았는데 이르기를, '일찍이 자모(慈母)의 상을 당하여 허망된 것으로 슬픔을 막으려고 마침내 석씨(釋氏, 불교)의 가르침에 빠져 깊은 산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지만, 마음을 다 쏟아도 더러움을 씻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조 임금께서 성혼을 처벌하는 하교에 이르기를, '재신(宰臣, 관원을 통솔하는 관리)으로서 경기도의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피난 변고를 듣고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가마가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서 알현하지 않(았)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군부(君父)를 버리고 국난에 달려가지 않고서도 하늘의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소문을 받아 읽고 숙종은 주동자 박성의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하명하였다. 다음날 경연의 자리에서 참찬관 이유(李濡) 등이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박성의 등의 주장이 잘못된 점을 논했다. 먼저 율곡이 불교에 일시적으로 입문을 한 것은 주자도 그런일이 있었으므로 잘못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우계 성혼의 경우는 간신들이 거짓으로 무함을한 것이었다고 임금에게 보고했다. 임금은 그러한 사항을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문묘 종사 결정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이날 임금은 박성의 무리를 비호한 예조 정랑 유정화에 대해서 파면을 명하였다.

같은 달 9월 30일에는 부응교(副應敎) 송광연(宋光淵)·교리(校理) 이돈(李墩)· 부교리(副校理) 신엽(申畢) 등이 집단으로 보고서를 올려 문묘 종사 반대 상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장문의 의견을 올렸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임금은 이렇게 답했다.

"두 현신(賢臣, 율곡과 우계)의 도덕과 학문의 고명함과 박성의(朴性義) 등이 음험하고 어긋나게 선정(先正)을 추잡하게 욕하는 말을 내가 이미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 의견을 엄중하게 끊는다는 뜻을 분명히 유시하였다. 이제 (내가 이 결정을) 굳게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절로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방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 죄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월 1일의 경연 자리에서 서인 관료들은 박성의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임금은 "이미 박성의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죄를 더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며 더 이상의 징계를 반대했다. 하지만 박성의를 변호하고 그의 죄를 벗게 해 주려는 정언 이징귀(李徵龜)에 대해서는 홍문관 관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직을 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광연은 "이이가 정한 학교 모범(學校模範) 16개 조를 게시하여 오늘날 학교

의 규범으로 삼으소서."라고 율곡의 『학교모범』을 정식 규범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는데, 임금은 이를 허락했다.

10월 29일 유생 조신건(趙信乾) 등이 또 율곡과 우계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임금은 선조 시대에 두 현신에 대해 비록 문묘 종사를 허락하지는 않았으나 본래 융성한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였는데 어찌 감히 선조임금이 문묘 종사를 거부한 것을 핑계 대고 증거로 삼아 근거 없이 헐뜯기를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가 한탄하고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신건을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라."라고 전교를 내렸다.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해 12월 1일에는 영남 유생들 수백 명이 서울로 올라와 상소 문을 올려 율곡 등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였다. 숙종은 이에 앞으로 방자하게 도리에 어긋 나는 의논으로 선현을 거짓으로 욕하는 사례가 있거나, 상소문을 올려 법을 무시하고 폐단 을 일으키는 자는 엄중하게 법률로써 바로잡는다고 엄명하였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 속에 송시열은 상소문을 올려 "문성공(율곡)은 먼저 병이 들었다가 뒤에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가 선학(禪學)을 탐했을 때의 나이는 20세 이전이었으니, 더욱이 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변호하고 이번 기회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도 문묘에 종사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였다.

"고 문원공 김장생은 정자(程子)와 주자의 학통을 문성공 이이에게서 얻었습니다. 이미 그학설을 모두 물려받아 마음에 징험하고 몸에 체득한 연후에 주자께서 한스러워하던 바를 개탄하고, 만년에는 오로지 예서(禮書)에다 뜻을 두었습니다. (중략) 문원공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가례집람(家禮集覽)』·『의례문해(疑禮問解)』·『예기기의(禮記記疑)』 등의 책은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여 물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가의 전장(典章)과 사가(私家)의 경례(經禮)와 변례(變禮)에 모두 절충(折衷)하는 바가 있되, 한결같이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주장하였기에 비록 다른 길로 추향 하는 집안이라도 준용(遵用) 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그 공로가 많다고 말할 만합니다. 대저 정중(鄭衆)과 두자춘(杜子春)은 단지 『주례(周禮)』의 글을 주석한 공만으로도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문원공은 동방의 예가(禮家)를 대성하였는데 어찌 어렵겠습니까?"

숙종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내렸다.

다음 해 (숙종 8년, 1682년) 1월 29일에도 경상도에 사는 진사 고세장 등 수백 명이 다시율곡과 우계의 문묘 배향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들은 이 두 인물이 문묘에 모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였는데, 이런 이들의 건의에 대해서 도승지(都承旨) 이익상(李翊相) 등은 "(이들 유생들이 율곡 등을) 미워하는 마음만을 품고 이미 정해진 예(禮)를 막으려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고 인심이 맑지 못한 탓이니, 물리쳐 끊어서 치우치고 어지러운 말이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임금에게 권했다. 이에 숙종은 "공의(公議)가 정해진 뒤에도 이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잇따라상소하여 조금도 꺼림 없이 유현(儒賢, 율곡과 우계)을 혈뜯으니, 그 마음 둔 것이 더욱 지극히 한탄스럽다. 상소를 올린 대표 고세장(高世章)은 멀리 귀양 보내라."라고 하명을 하였다.

이후로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잦아들었다.

이해 5월 20일에 예조에서 절차를 갖추어 대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거행하였다. 다음날에 문묘 종사 내용을 안팎에 교서를 반포하여 알리고 모든 관리 들이 하례를 하였다. 임금은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였다.

"문성공(文成公, 율곡)의 조예가 고명한 것은 태어날 때 해·달·별과 오악의 정기를 타고났으며, 문간공(文簡公, 성혼)의 품행이 돈독한 것은 학문이 가정에서 근본 한 것이니, 함께 공자 문하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뚝하게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이기(理氣)와 성정(性情)에 대한 분별은 이미 지극하게 정밀하였고, 규모와 사업의 융성함은 더욱 광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웅대한 말과 숭고한 의론은 성실한 군주에 대하는 정성이요, 탁월한 지식과 완전한 재능은 용감한 도를 맡은 용기였다. (중략)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문숙공(文肅公) 황간(黃幹)·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새로 배향하였다. 아! 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 사람이 어찌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있겠는가? 일이 전대(前代)를 빛나게 함은 향하여 따르는 길을 능히 보여 주는 것이고, 유풍을 사방에 일어나게 함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니,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1683년(숙종 9년) 12월에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승하하였다. 명성황후는 1680년 12월에 숙종이 부인을 사별하자 급히 서둘러 새로운 며느리를 찾았다. 당시 숙종은 궁녀로일하는 장옥정, 즉 나중의 희빈 장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던 상태였다. 그래서 명성왕후는 궁궐에서 장옥정을 내보내고 1681년(숙종 7년)에 민유중(閔維重, 1630년~1687년)의딸을 왕비로 간택하여 맞아들였다. 이 부인이 인현왕후인데 당시 14세였으며 은진 송씨(恩津宋氏)송준길(宋浚吉)의 외손녀였다. 민유중은 한성부 판윤을 지냈으며 당색은 서인, 노론이었으며 동춘 송준길과 우암 송시열의 제자였다.

이 무렵 서인은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윤증(尹拯, 1629년~1714년)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 했으며 민생안정과 자치 자강을 강조했다. 반면에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다. 숙종은 이 두 파벌을 연립시켰으나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것은 송시열의 노론이었다. 송시열은 왕실의 외척인 김석주·김만기·민정중과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했다. 김석주(金錫胄, 1634년~1684년)는 명성왕후의 사촌 오빠이며, 김만기(金萬基, 1633년~1687년)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의 아버지고, 민정중은 새로 맞이한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친형이다.